

## 울산시민의 삶의 질 : 실태와 제고방향

한상진

사회과학부 사회학 전공

### <요 약>

이 글은 사적 영역, 정주환경 영역, 지역사회서비스 영역, 생태환경 영역이라는 네 가지들에서 울산시민의 삶의 질 실태를 경남의 타도시와 비교하고 있다. 분석의 결과 울산시민의 삶의 질은 경제생활수준과 고용기회 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지만, 대부분의 지표들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광역시의 출범은 경남의 다른 일반도시보다 열악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울산광역시 정부가 '큰울산'이라는 외형적 성장을 고집하기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하나의 주체이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으므로, 시민이 스스로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한 지역경제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민축제, 경관이미지 등의 도시상징이 활용되어야 하는데, 이것들은 위로부터 하달되기보다는 아래로부터 폭넓게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

##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in Ulsan

Hahn, Sangjin

Professor of Sociology

### <Abstract>

This paper compares the qualities of lives(QLs) of the residents in Ulsan with those in the other cities in the Gyeongnam Province focusing on such four areas as private livings, settlement environments, community services and ecological environments.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residents in Ulsan suffer the worst level of the

QLs except the economic living conditions and the employment opportunities. However, the launching of the Ulsan Metropolitan City may give its residents an important chance for ameliorating their own QLs. In these circumstances, the Ulsan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redirect its policies from the developmentalist 'Grand Ulsan' to the consideration about the QLs of its citizens. In addition, the residents in Ulsan should not only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for ameliorating their own QLs, but also form the local identities from the bottom.

## 1. 문제의 제기

울산시의 광역시로의 승격은 서울 본사에서 기획된 생산기능을 실행하기만 하던 공업도시 울산이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강화되는 자족도시로 발돋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울산광역시의 발전은 행정조직과 예산의 팽창만으로 확보될 수 없으며, 이들 추가 자원을 시민들이 울산을 일터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서 만족하고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가에 좌우될 것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울산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분석은 광역 울산시가 시민참여 속에 발전하는 방향을 찾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삶의 질 연구는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생활조건을 중시하는 접근과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삶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접근으로 구별되어 왔다.<sup>1)</sup> 그런데 초창기에는 재화, 서비스, 화폐 등의 총량적 성장에 초점을 두는 시도가 대체를 이루었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삶의 질에 대한 사회성원의 개별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사회과학계에서는 삶의 질의 경험적 측정기법<sup>2)</sup>과 고려해야 할 생활영역<sup>3)</sup> 등과 관련하여 합의된 틀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삶의 질에 대한 논쟁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만족도의 관계, 그리고 주관적 만족도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만족감과 대인관계가 미치는 중요성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핵심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Offer, 1996: 8).

이를 종합해 볼 때, 삶의 질은 사회적 조건 및 제도와 사회성원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개인의 삶을 가치있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 만족감의 총량이라 규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는 사회적 조건과 제도가 개인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객관적 상황이 나 물질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조건 속에서 존재하는 사회구성원이 제도나 사람

- 
- 1) 그런데 가톨릭대 사회과학연구소(1996: 112)는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사회경제지표 연구로 분류하며 주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할 경우에만 삶의 질 연구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사회경제지표 연구는 주로 지역사회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자원과 기회를 각종 지표로 계량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평가하는 반면, 삶의 질 연구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삶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만족감을 측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 2) 삶의 질 지표의 선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로는 통일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측정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너무 제한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더욱이 개인의 차원에서 평가되는 주관적인 견해 또한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성규(1996: 218-220) 참조.
  - 3)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생활영역들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면, 에반스(Evans)의 경우 첫째 자아실현과 종교적 만족, 둘째 재정만족과 가족의 복지, 셋째 가족생활의 질과 결혼만족 및 직용, 넷째 직업만족, 다섯째 여가생활, 여섯째 지역사회 만족으로 파악한다. 또 라이(Lic)는 삶의 영역을 경제, 환경, 건강과 교육, 정치, 사회 등의 5개로 나누며, 앤드류스(Andrews) 등은 결혼과 가족생활, 여가생활, 노동과 재정, 주거, 지역사회, 동료관계 등으로 구분한다. 이은진(1996: 3-4) 참조.

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성취감, 애정과 친밀감, 자유와 자율 등과 같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삶의 질이라는 주관적 만족도는 한편으로는 소득수준, 주거환경, 교통사정, 소음정도 등과 같은 객관적 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밀감, 사랑, 존경과 같은 주관적 감정에서 연유할 수도 있다(김상균 1996: 220).

한편 삶의 질은 절대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 가운데 국가, 또는 지역마다 다양하게 규정되는 것이다. 그러한 흐름에서 최근에는 지역주민의 삶에 대한 좀더 적극적이고 밀착된 관심에서 도시 단위의 삶의 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sup>4)</sup> 이 글은 광역 울산시의 발전과 시민생활의 개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기 위해,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경남의 다른 9개 도시들<sup>5)</sup>과 비교하여 밝혀 보고자 한다. 경남 타도시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첫째 울산과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1997년 7월까지 같은 광역시 정부 아래 속해 있었으며, 둘째 그로 인해 광역시 승격 이후 울산시민의 삶의 질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준거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94-96년에 실시된 경상남도의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이다.<sup>6)</sup>

## 2. 울산시민의 삶의 질 실태

### - 경남 타도시 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1) 지표의 설정

삶의 질이란 도시나 지역사회 자체가 아니라 그 곳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측정된다. 그러므로 삶의 질 지표 설정은 해당 도시의 객관적인 생활조건보다는,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 뿐만 아니라 직장여건, 가족생활 등 삶의 전반을 포괄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한국의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설정된 삶의 질 지표들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지표 설정에 참조하도록 한다.

먼저 중앙일보(1997)는 안전생활, 교육복지, 문화생활, 편리한생활, 건강생활, 경제생활 등 6개 분야마다 6개씩 모두 36개의 객관적인 생활지표를 설정<sup>7)</sup>하고 주민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추가하여 전국 73개 도시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경상남도(1996)의 경우 인구, 소득소비, 고용노사, 교육, 보건체육, 주택, 환경교통, 사회, 문화여가, 공안 등 10

4) 대표적인 것으로 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95),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96),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96), 한림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1996) 등이 있다.

5) 1997년 9월 현재 경남에 소재하는 도시는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기제, 양산 등 10개이다. 그런데 양산시는 1996년에 시로 승격되어, 1995년, 1994년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6) 1996년의 경우 표본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12,5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4년의 경우 도농통합 전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7) 36개의 삶의 질 지표는 범죄발생 정도, 교통사고 발생률,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교통편리성, 맑은 공기, 공공도서관 장서수, 화재발생 빈도, 유흥업소수, 사고발생 정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4년제대학 및 전문대 정원수, 서점수, 수질의 맑은 정도, 지역 장바구니 물가, 경찰관수, 행정서비스 수준, 공원녹지 비율, 시장 백화점, 사실학원수, 신시공간 면적, 시립예술단체 활동, 아파트 시세, 음악, 연극무대 객석수, 1인당 방송, 영화관 좌석수, 사회복지비, 우수보급률, 재정사립도,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 시 행정정보화 정도, 의료인수, 인구밀집 정도, 약국수, 보건위생에 쓰는 예산, 1인당 예산규모이다. 중앙일보(1997) 참조.

개 영역에 걸쳐 사회지표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하성규(1996)는 21세기 주요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삶의 질의 구성요소를 환경, 경제, 문화, 복지, 기반시설, 정주환경이라는 6개로 잡고 있다.

한편 이은진(1996)은 소득과 경제생활, 정치적인 참여와 안정, 가족생활, 직업만족, 지역 사회만족 등 다섯가지를 사회생활분야로 선정한 다음, 가족, 직장, 지역사회를 생활의 기본 영역으로, 소득과 경제생활, 정치적인 참여와 안정을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기본변수로 구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톨릭대 사회과학연구소(1996)은 삶의 질 영역을 작업장, 사적 영역, 공적영역 등 3가지로 분류<sup>8)</sup>하고 있다. 이들 세 영역은 자원과 기획의 제공주체들이 고용주, 시민 개인, 지역사회라는 점에서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심리적 만족도를 느끼는 메카니즘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의 접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삶의 질 영역을 사적 영역, 정주환경 영역, 지역사회서비스 영역, 생태환경 영역이라는 네 가지로 설정하기로 한다. 물론 직장생활이나 가족생활 또한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으나, 이 글이 광역울산시의 발전 방향이라는 지역사회 정책과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위의 네가지 삶의 질 영역은 사적 영역에서 생태환경 영역으로 갈수록 공간적 범위가 확대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포함되는 세부 지표 26개는 <표1>에 나타나 있다.

8) 각 영역별 하위 지표들을 보면, 우선 작업장의 경우 일의 성격, 난이도, 보람, 자기실현, 물질적 보상, 여가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사적 영역은 사회적 관계(가족관계, 이웃과의 친근 정도, 친구관계, 이웃 관계), 개인적 삶의 조건(자신과 가족의 건강, 교육수준만족), 경제생활수준(소득수준, 주택넓이, 소수생활 수준, 주거지역), 문화생활수준(여가시간활용도, 문화생활정도, 사회생활)으로 측정된다. 끝으로 공적 영역은 경제여건(취업기회, 물가), 소비생활(물품구입, 주택사정), 교통여건(교통편의, 교통안전, 교통상황), 교육여건(교육환경, 학교폭력, 학교주변여건), 문화생활여건(대중적 문화여건, 고급문화여건, 자기개발여건), 환경여건(쓰레기, 상하수도, 산업공해), 사회복지서비스(노약자, 유치원, 의료시설), 편의시설 여건(은행우체국, 통신편의, 이머용 목욕탕), 안전과 치안(집수 등 시설안전, 치안)이라는 9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가톨릭대 사회과학연구소(1996: 126-150) 참조.

<표1> 삶의 질 영역과 세부 지표

삶의 질 영역	세부 지표
사적 영역	1. 가구소득에 대한 주관적 평가 2. 장래가구소득에 대한 기대 3. 주관적 건강상태 4. 이웃간의 친밀도
정주환경 영역	5. 주택규모 만족도 6. 일조통풍 만족도 7. 부대시설 만족도 8. 난방시설 만족도 9. 상하수도시설 만족도 10. 시장이용 만족도 11. 직장출퇴근 및 자녀통학 만족도 12. 범죄발생으로부터의 안전성
지역사회서비스 영역	13. 지역사회의 고용기회에 대한 주관적 평가 14. 대중교통수단의 만족도 15.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6. 의료시설, 서비스의 만족도 17. 사회복지정책의 만족도 18.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19.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여망반영도 20. 경찰관의 친절도
생태환경 영역	21. 상수도에 대한 주관적 오염도 22. 하수도에 대한 주관적 오염도 23. 소음진동에 대한 주관적 오염도 24. 악취에 대한 주관적 오염도 25. 대기에 대한 주관적 오염도 26. 토양에 대한 주관적 오염도

주 : 17은 1994년에, 1, 4, 13, 15-16, 20은 1996년에, 나머지는 1995년에 조사된 지표임

한편 삶의 질에 관한 측정항목들은 대부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이라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만족과 불만족의 정도에 따라 값의 크기를 1과 2로 차별화시켜, “매우 만족”은 +2, “약간 만족”은 +1, “보통”은 0, “약간 불만”은 -1, “매우 불만”은 -2의 값을 주었다.<sup>9)</sup> 또한 성주환경과 생태환경 영역의 경우 해

9) 이웃간의 친밀도의 경우 “잘 알며 자주 왕래”, “잘 알지만 인사만”, “살 보으며 인사만”, “잘모름”의 4진 척도로 되어 있어, 같은 논리로 “잘 알며 자주 왕래”는 +2, “잘 알지만 인사만”은 +1, “잘 보으며 인사만”은 -1, “살보름”은 -2점을 주었다. 또한 지역사회의 고용기회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충분함”, “충분

당 세부지표의 평균으로 전체적인 삶의 질의 값을 계산했다.

## 2) 경남 타도시 주민과의 삶의 질 비교

<표2>는 중앙일보가 1995년과 1997년에 집계한 전국 도시의 삶의 질 순위 가운데 울산과 경남 9개시만을 추린 것이다. 울산의 삶의 질은 1995년에 전국 74개 도시 가운데 67위였다가 1997년에는 전국 73개 도시 중 71위를 기록해 거의 최악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경남 타도시와 비교해 볼 때에도 1995년에는 밀양시가 더 나빴으나, 1997년에는 울산시가 가장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객관적인 삶의 지표를 중심으로 조사된 자료에서 울산의 열악한 삶의 질은 타도시의 추종을 불허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주관적 만족도를 중심으로 평가할 때 울산시민의 삶의 질은 어느 수준으로 나타날까?

<표2> 울산과 경남 타도시의 삶의 질 순위(1995, 1997)

단위 : 위(점)

	1995	1997
울산	67(-2.52)	71(-1.993)
창원	3(+4.00)	15(+0.772)
마산	14(+1.56)	61(-1.076)
진주	23(+1.04)	7(+1.229)
진해	4(+3.51)	26(+0.445)
통영	29(+0.68)	39(+0.026)
사천	61(-1.64)	38(+0.031)
김해	32(+0.41)	62(-1.106)
밀양	70(-4.79)	70(-1.739)
거제	21(+1.12)	49(-0.215)

주 : 순위는 전국 73개 도시(1995년의 경우 74개) 중의 서열을 가리킴.

출처 : 중앙일보(1997)에서 재구성.

### (1) 사적 영역에서의 삶의 질

우선 울산시민의 사적 영역에서의 삶의 질에 관해 현재 및 장래의 가구소득과 건강상태, 이웃친밀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표3> 참조). 여기에서 가구소득은 경제생활 수준, 건강상태는 개인적 삶의 조건, 이웃친밀도는 사회적 관계의 실적 측면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경남의 타도시 주민과 비교해 볼 때, 울산시민의 경우 현재의 가구소득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장래의 가구소득, 건강상태, 이웃친밀도는 낮은 점수

하나 힘든일 기피”, “충분치 않음”의 3점 척도로 되어 있어, “충분함”은 +2, “충분하나 힘든일 기피”는 0, “충분치 않음”은 -2의 값을 주었다.

10) <표2>를 보면 2년 사이에 도시마다 삶의 질 순위가 꽤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 중요도 평가에서 건강한 생활의 중요도가 1995-97년에 1/3 미만으로 하락한 반면 안전한 생활의 경우 약 2배 상승했기 때문이다(중앙일보, 1997).

를 기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천, 밀양 등 농촌중심의 도시가 경제생활, 개인적 삶의 조건은 열악하지만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는 친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경남 유일의 계획도시인 창원외의 경우 경제생활수준, 개인적 삶의 조건은 양호하나 이웃관계가 원활하지 못함을 엿볼 수 있다.

<표3> 울산시민과 경남 타도시 주민의 사적 영역에서의 삶의 질 순위

단위 : 점(위)

	가구소득	장래가구소득	건강상태	이웃친밀도
울산	-0.703(3)	0.474(7)	0.218(7)	0.719(8)
창원	-0.680(2)	0.557(2)	0.292(2)	0.521(10)
마산	-0.780(7)	0.500(5)	0.267(4)	0.592(9)
진주	-0.712(4)	0.480(6)	0.269(3)	0.899(7)
진해	-0.772(6)	0.516(4)	0.300(1)	0.927(6)
통영	-0.824(8)	0.528(3)	0.178(8)	1.029(5)
사천	-0.829(9)	0.299(10)	0.093(10)	1.503(1)
김해	-0.716(5)	0.452(8)	0.224(6)	1.038(4)
밀양	-0.842(10)	0.325(9)	0.130(9)	1.463(2)
거제	-0.627(1)	0.589(1)	0.260(5)	1.343(3)

자료 : 경상남도(1995, 1996).

경상남도(1995)에 의하면, 울산에서 한달 평균 50만원 이상을 저축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32%로 창원의 39.8%, 진해의 32.8% 다음으로 높은 3위이다.<sup>11)</sup> 이처럼 울산시민의 경우 현재의 가구소득과 저축수준이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래가구소득을 좀더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활동의 지속적 유지가 불안정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라 여겨진다.<sup>12)</sup> 한편 사적 영역의 삶의 질에서 소득이나 건강상태 외에 가족, 친구, 이웃과의 원만한 사회적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울산의 경우 경남의 타도시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가족해체의 경향이 좀더 크리라 추정된다. 1997년 6월 현재 울산에서는 하루에 6.7쌍이 이혼하고 있으며, 이는 1995년 현재 인구 100만명 당 하루에 4.4쌍 이혼하는 전국 평균에 견주어 좀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sup>13)</sup>

(2) 정주환경 영역에서의 삶의 질

- 11) 기타 도시의 해당 비율을 순위별로 나열하면 거제 29.5%, 진주 28.4%, 통영 27.7%, 마산 26.3%, 김해 22.6%, 밀양 15.2%, 사천 13.9%이다 경상남도(1995) 참조.
- 12) 이와 관련하여 주관적 경제활동의 한계 연령을 55세 미만으로 보는 비율은 울산이 18.6%로서 사천 23.5%, 통영 21.2%, 김해 20.8% 다음으로 높은 4위로 나타난다. 한편 그 밖의 도시에서 해당 비율은 진주 16.6%, 마산 15.2%, 창원 14.9%, 진해 14.8%, 거제 14.3%, 밀양 10.7%이다 경상남도(1994) 참조.
- 13)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따르면, 1997년 1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울산에서는 140여건의 소송을 통한 이혼 판결과 900여건의 협의이혼 허가가 내려져 모두 1천여건이 넘는 이혼이 발생했다(경상일보, 1997). 한편 통계청의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의하면, 1995년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이혼 건수는 6만 9천 266 건이었다(서울신문, 1997). 그러므로 인구 100만명인 울산시에서는 1997년 6월 현재 하루에 이혼이 6.7건 발생하는 데 비해, 전체 인구를 4,300만명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는 1995년 현재 하루당 이혼이 4.4건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정주환경은 지역사회 등의 사회환경과 연계되는 동시에 휴식을 취하는 개인화된 장소이다. 따라서 정주환경 영역은 삶의 질의 측면 가운데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995년 현재 울산에서 방한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11.8%로서 마산의 12.7% 다음으로 높으며, 자기집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51.4%로서 창원 47.9% 다음으로 낮다.<sup>14)</sup> 그러므로 정주환경의 객관적 지표를 통해 볼 때, 가구규모가 비슷하다고 가정한다면 울산시민은 경남의 타도시 주민보다 주거의 쾌적성과 안정성이 좀더 나쁜 상태에 처해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정은 <표4>의 정주환경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에서도 그대로 발견된다. 울산시민은 8개의 세부 지표를 평균한 정주환경 영역의 삶의 질에 대해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주환경 가운데 울산에서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문은 상하수도 시설과 범죄로부터의 안정성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전반적으로 울산, 창원, 마산과 같은 대도시 일수록 정주환경에 대한 불만의 정도가 중소도시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표4> 울산시민과 경남 타도시 주민의 정주환경 영역에서의 삶의 질 순위

단위 : 점(위)

	정주환경영역	주택규모	일조통풍	부대시설	난방시설	상하수도	시장이용	출퇴근	안전성
울산	<b>-0.178(10)</b>	-0.239	0.107	-0.255	0.163	-0.154	-0.439	-0.300	-0.309
창원	<b>-0.155(9)</b>	-0.202	0.169	-0.298	0.129	-0.045	-0.475	-0.212	-0.305
마산	<b>-0.106(7)</b>	-0.312	0.055	-0.334	0.100	-0.057	0.066	-0.076	-0.292
진주	<b>-0.019(5)</b>	-0.073	0.217	-0.126	0.243	0.234	-0.175	-0.286	-0.191
진해	<b>0.022(3)</b>	-0.228	0.256	-0.181	0.091	0.052	0.015	0.024	0.150
통영	<b>0.095(2)</b>	0.059	0.545	0.054	0.306	0.301	-0.409	-0.250	0.152
사천	<b>-0.008(4)</b>	-0.069	0.332	0.051	0.256	0.184	-0.360	-0.410	0.055
김해	<b>-0.060(6)</b>	-0.180	0.375	-0.262	0.198	0.179	-0.340	-0.325	-0.128
밀양	<b>-0.137(8)</b>	-0.199	0.527	-0.299	0.007	0.192	-0.629	0.596	-0.097
거제	<b>0.184(1)</b>	0.069	0.701	0.111	0.562	0.428	-0.503	-0.229	0.336

자료 : 경상남도(1995).

### (3)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삶의 질

경상남도(1996)가 조사한 거주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의 전반적 평가 점수들이 이 글의 측정항목 계산방식대로 환산하면, 울산이 0.009점으로 가장 낮고 마산 0.239점, 밀양 0.362점, 통영 0.367점, 김해 0.420점, 사천 0.564점, 진해 0.645점, 진주 0.687점, 거제 0.754점, 창원 0.783점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같은 자료에서 3년후 지역의 예상 만족도를

14) 그밖에 방한칸 거주가구의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김해 9.7%, 진해 8.3%, 창원 7.9%, 밀양 6.1%, 진주 6.0%, 통영 5.3%, 거제 4.6%, 사천 3.2%이고, 자가거주 가구 비율이 낮은 순서대로 보면 마산 52.0%, 진해 52.3%, 김해 59.4%, 진주 62.9%, 거제 67.6%, 통영 74.4%, 사천 82.9%, 밀양 86.8%이다(경상남도, 1995).



계산하면, 울산이 0.417점으로 다른 7개 도시에 비해서는 낮으나<sup>15)</sup> 마산 0.337점, 창원 0.403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울산시민은 현재의 지역사회 여건에 대해 경남의 타도시 주민보다 만족 정도가 떨어지지만,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마산, 창원 등의 다른 대도시 주민에 비해 낙관하는 편이다. 그러면 8개의 세부지표별로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검토해 보자(<표5> 참조).

전체 26개의 삶의 질 지표 가운데 울산이 경남 타도시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고용기회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유일하다. 그 밖의 지역사회서비스 면에서 울산시민의 삶의 질은 모두 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특히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시책 및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여망반영도는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울산이 국가적인 산업화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생산도시로 성장해 온 결과, 시민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지역사회서비스의 확충이 지체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표5> 울산시민과 경남 타도시 주민의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삶의 질 순위

단위 : 점(위)

	고용기회	대중교통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사회복지	문화여가	자치단체	경찰서비스
울산	-0.218(1)	0.569(9)	-0.432(10)	-0.481(6)	-0.288(10)	0.822(10)	-0.513(10)	0.365(8)
창원	-0.230(2)	-0.595(10)	-0.286(7)	-0.415(5)	-0.184(6)	-0.399(1)	-0.444(9)	0.400(6)
마산	-0.604(4)	-0.410(6)	-0.146(2)	-0.275(2)	-0.219(8)	-0.705(8)	0.387(7)	0.371(7)
진주	-0.814(6)	0.289(4)	0.253(1)	-0.297(3)	0.008(1)	-0.496(2)	-0.277(3)	0.337(10)
신해	-1.100(7)	-0.167(1)	-0.335(8)	-0.214(1)	-0.128(3)	0.656(5)	-0.377(6)	0.410(4)
통영	-1.156(8)	-0.203(2)	-0.242(6)	0.486(7)	0.155(5)	-0.617(3)	-0.134(1)	0.412(3)
사천	-1.344(10)	-0.453(8)	-0.208(3)	-0.599(10)	-0.135(4)	-0.648(4)	-0.314(5)	0.474(2)
김해	0.494(3)	-0.443(7)	-0.389(9)	-0.409(4)	-0.256(9)	-0.746(8)	-0.294(4)	0.403(5)
밀양	-1.270(9)	-0.343(5)	0.208(3)	0.520(9)	0.067(2)	-0.692(6)	-0.225(2)	0.339(9)
거제	-0.636(5)	-0.266(3)	0.232(5)	0.497(8)	0.208(7)	-0.803(9)	-0.394(8)	0.482(1)

자료 : 경상남도(1994, 1995, 1996년).

#### (4) 생태환경 영역에서의 삶의 질

생태환경의 악화는 21세기를 눈앞에 둔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지구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차원의 구체적 쟁점이 되고 있다. “공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으로 뿜어나가는 그날엔 국가의 희망과 발전이 눈앞에 도래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저돌적 산업화의 가치는 울산시민에게 공해1번지 주민이라는 오명을 안기면서도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생태환경 영역에서의 삶의 질은 다른 지역사회 서비스들과는 달리 단기적인 정책개입으로 쉽게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대는 물론 후대 울산시민의 만족한 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표6>을 보면 울산시민의 생태환경 영역에서의 삶의 질은 경남 타도시 주민에 비해 매우 낮은 점수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주환경 영역에서는 울산과 9위 도시간에 삶의

15) 지역사회의 예상 만족도가 높은 도시부터 나열하면 사천 0.832점, 거제 0.822점, 김해 0.704점, 밀양 0.611점, 진해 0.595점, 통영 0.526점, 진주 0.487점이다(경상남도, 1996년)

질 점수의 차이가 0.023점이었는 데 반해(<표4> 참조), 여기서는 그 차이가 0.215점이나 된다. 6개 세부지표 가운데에는 악취, 대기가 울산에서 가장 심각하며 상수도의 경우 마산 보다는 사정이 약간 나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울산시민과 경남 타도시 주민의 생태환경 영역에서의 삶의 질 순위

단위 : 점(위)

	생태환경영역	상수도	하수도	소음진동	악취	대기	토양
울산	<b>-0.453(10)</b>	-0.471	-0.586	-0.423	-0.501	-0.558	-0.179
창원	<b>-0.238(8)</b>	-0.446	-0.528	-0.281	-0.173	-0.075	0.074
마산	<b>-0.300(9)</b>	-0.557	-0.565	-0.302	-0.218	-0.143	-0.015
진주	<b>0.060(6)</b>	0.176	-0.120	-0.116	-0.005	0.163	0.264
진해	<b>0.119(4)</b>	0.012	-0.163	0.059	0.117	0.320	0.371
통영	<b>0.233(3)</b>	-0.459	0.103	0.254	0.231	0.722	0.547
사천	<b>0.109(5)</b>	-0.222	-0.115	0.202	0.037	0.392	0.360
김해	<b>-0.013(7)</b>	-0.123	-0.260	-0.072	-0.093	0.309	0.164
밀양	<b>0.299(1)</b>	-0.345	0.187	0.413	0.300	0.666	0.571
거제	<b>0.289(2)</b>	-0.462	-0.035	0.361	0.302	0.829	0.739

자료 : 경상남도(1995).

### 3. 맺음말 - 울산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지금까지 이 글은 사적 영역, 정주환경 영역, 지역사회서비스 영역, 생태환경 영역이라는 네 가지 틀에서 울산시민의 삶의 질 실태를 경남의 타도시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울산 시민의 삶의 질은 경제생활수준과 고용기회 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지표들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광역시의 출범은 경남의 다른 일반도시보다 열악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여기서는 이를 위한 기본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원칙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울산광역시 정부는 '큰울산'이라는 외형적 성장을 고집하기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울산의 광역시로의 승격은 광역적으로 개발하는 기회라기보다는 도시공간의 광역적 기능을 고려하여 삶의 질 제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문제들을 넓게 접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울산광역시 정부는 가시적인 하드웨어적 계획에 치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시민 하나하나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지침들을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의 통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하나의 주체이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으므로, 시민이 스스로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나서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광역시 승격으로 증가되는 재정수입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 자원이 되기 때

문에, 시민과 전문가가 재정 관리 및 투자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청된다. 이처럼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려면 소수 지역지배층의 권력 독점을 막고 지역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꾀하는 시민운동의 조직적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울산의 시민운동단체들은 시민의 삶의 질 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사안별 협력은 물론, 세부적 전문영역별로 분업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크다.

그런데 현재 울산의 시민운동은 시민사회의 미성숙과 울산시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낮은 애착도<sup>16)</sup>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아울러 울산시민의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 또한 시급하다고 하겠다.<sup>17)</sup> 시민들이 울산을 삶의 뿌리로 인식하게 만드는 문화적 토양이야말로 단순한 객관적 여건이 아니라 주관적 만족감으로 표현되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정체성의 확립에는 시민축제, 경관이미지 등 도시상징의 활용이 필수적인데, 이것들은 위로부터 하달되기보다는 아래로부터 폭넓게 형성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희망적인 것은 시 승격 35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울산을 고향으로 하는 신세대들이 지역사회에 주도세력으로 부상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들이 울산의 도시분화를 창조적으로 이끌도록 하는 데에는 지역사회 정보망처럼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매체의 활용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가톨릭대 사회과학연구소. 1996, 『자치시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 욕구조사』, 부천시.
- 경상남도. 1994,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 . 1995,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 . 1996ㄱ,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 . 1996ㄴ, 『경남의 사회지표』.
-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1996, “특집: 삶의 질 - 공간과 환경(I)”, 『사회과학연구』, 제14권 제1호.
- 경상일보. 1997, 6월 7일자.
- 김상균 편. 199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잡이』, 나남출판.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특집1: 삶의 질 - 건강한 정서와 행위”, 『사회과학연구』, 제14집.
- 서울신문. 1997, 7월 2일자.
- 울산대 사회과학연구소. 1994, 『울산시민의 의식구조와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 이은진. 1996, “산업화와 삶의 질”, 가톨릭대 사회과학연구소 외. 『경인지역의 산업화와 삶

16) 울산대 사회과학연구소(1994)의 조사에 따르면 울산시민 가운데 울주군을 포함한 울산시에서 출생한 비율은 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17) 정근식(1997: 144-145)은 지역정체성의 확립에 필요한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주민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참여적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문화적 사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주민생활의 질을 고양하는 문화복지의 이념이 중요하다 다섯째 몇 개의 소단위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 의 질』, 제1회 경인지역 사회과학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정근식. 1997, “지역 정체성과 도시상징 연구를 위하여”,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지역 사회 연구방법의 모색』, 전남대 출판부.
- 중앙일보. 1997, 6월 26일자.
- 하성규. 1996, “21세기 경남의 삶과 그 질”, 경남개발연구원. 『경남의 재발견』.
- 한림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1996, “특집 :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비교연구: 춘천시, 정주시 진주시 및 세주시 사례분석”, 『한국사회학평론』, 제3집.
- Offer (eds.). 1996, *In Pursuit of the Quality of Life*, Oxford University Press.